

지역 소식통

부안군, 백산성지·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당선작 선정

“얕으면 죽산, 깊어서면 백산이다.” 동학혁명의 기점인 백산을 널리 알릴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의 작품(안)이 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4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당선작 공모 당선작으로 김중환건축사사무소(이)엔지(대표 이길환)에서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된 작품은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다목적 라운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어 진열될 예정이다.

부안 백산성지 복측 인근에 조성될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국비 9억 등 전체 사업비 2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약 34.312제곱미터에 연면적 3.142제곱미터의 규모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으로 백산 동학농민혁명을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돌봄교실로 보육환경 개선

정읍시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지원 사업인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장난감과 도서 대여, 육아 상담, 가족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체류형 생활인구 증가

행안부·통계청,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2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발표

정읍시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 도시로 변모하며 생활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2분기(4~6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시의 생활인구는 34만 7759명에 이르렀다. 이는 1분기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증가의 주요 요인인 체류인구는 1만 5000여 명이 늘어났다.

특히 이번 생활인구 증가는 정읍이 과거 가을철 한철 관광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6월 기준 숙박일수(4.7일), 6개월 내 재방문율(44.7%), 체류일수(3.6일), 체류

일 당 평균 체류시간(12.5시간) 등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정읍을 방문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사계절 관광시설 조성에 주력해온 정책적 노력을 꼽는다. 그간 시는 내장산과 구절초 등 자연 자원에 의존한 가을철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전주와 광주 등 200만 인구가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먼저 기존의 ‘내장아영장(65면)’, ‘국민여가 캠핑장(154면)’ 외에도 ‘내장호 아영장’을 새롭게 조성해 캠핑 인프라를 확장했다. 내장호 아영장은

복합아영지 2면, 자동차 20동, 카라반 6동, 캠핑용 자동차 전용 28면 등 다양한 형태의 아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캠핑족들의 지역 방문과 장기 체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 문화광장을 가족 친화형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화광장에는 실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인 ‘천사하이어즈’, 가족 단위로 음악과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음악분수’, 임산물 체험단지 및 목재문화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형 힐링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문화광장 일대를 순환하는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가 운영을 시작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상임위·예결위원 대상 현안사업 예산반영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6일 국회를 방문하여 부안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이원택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김윤덕의원, 이춘석의원, 유동수의원, 이기현의원 등 부안군 건의사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허영의원, 안도걸의원, 윤준병의원 등 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총사업비 300억원)’은 어업활동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해양어가 산업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

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총사업비 243억)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총사업비 40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총사업비 198억)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사업(총사업비 206억) 등 7개 사업을 차례로 건의하며 부안군에 필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유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부안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5일 의정실에서 지역 농업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안군의회 의원들 비롯해, 부안군 업무 관계자와 농업인단체 대표 김삼곤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필요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의 확대, △RFC 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지역 일대 농지활용 방안, △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감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농업인단체연합회 김삼곤 대표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활동”이라며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이강세, 김두래, 김원진, 박태수, 김광수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병래 의장은 “농업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상의해갈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생활인구 32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

6월 기준 체류인구 26만명,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두 번째로 많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다녀간 생활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관광객을 비롯해, 스포츠 활성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분석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다.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를 말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32만명이다. 지난 1분기 3월 기준 생활인구 26만명과 비교하여 6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류인구 증가추이다. 올 상반기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달은 4월로 31만명이 고창군에 방문했다. 청보라밭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의 방

문이 크게 늘었다.

이들 체류인구 중 약 75%는 전북 지역 외 타지역 거주자다. 1분기 인근지역 방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여, 인근지역뿐만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고창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카드사 등의 기관 자료를 포함한 이번 통계자료를 분석, 고창군의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은 45%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소매업에서의 카드 사용이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서 친환경 패션쇼 열려

드넓은 고창갯벌을 무대로 친환경 의상 패션쇼가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고창갯벌 워크웨어 패션쇼가 전날(5일) 오후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인근 토굴에서 열렸다.



세계유산 가치확산을 위한 ‘Work wear, Work Hear’ 프로젝트는 고창갯벌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의 어민 해설사 연구자, 활동가들을 위한 의식주 개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벤트다. 의복을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 정상급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패션모델들이 참여,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고창의 바지락, 장어, 새우, 고구마, 팥콩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과 커피가 제공됐다. 행사에 사용된 모든 무대설비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세계유산의 보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기획되었다.

주제영상은 가수 김가가 작곡한 음악을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인터뷰, 고창갯벌만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담아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했으며, 이 영상은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블릿 활용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정읍시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며,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확한 가구·주택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에 진행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어업 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관내 모든 거처와 가구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자료의 누락이나 이상치를 파악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육

탑이나 (반)지하 거주지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파악해 향후 주거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시가 진행하는 이 조사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와 가구(4만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 거쳐 단위로는 △주소 △거처 종류 △빈집 여부 △공동주택기초 등 8개 항목이, 가구 단위로는 △주택 형태 및 (반)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 형태 등 6개 항목으로 총 14개 항목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